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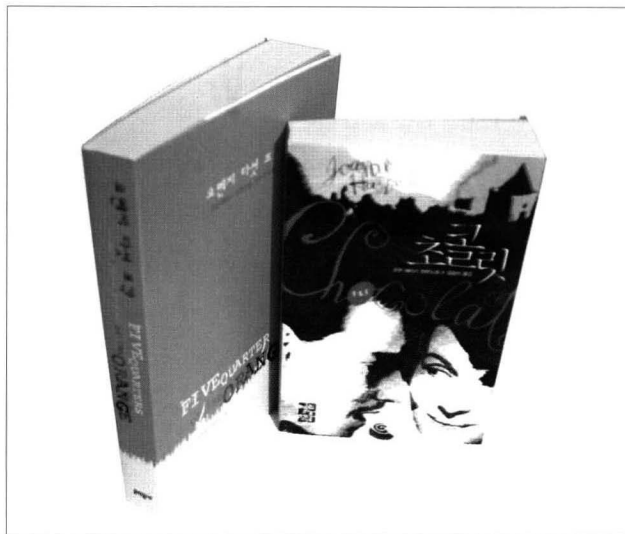
생소하고 친근한 맛의 마법을 주관하는 다정한 마녀

조안 해리스라는 작가는 아직 한국의 독자들에게는 낯선 이름이지만, 로맨틱한 포스터 비주얼의 <초콜릿>이라는 영화를 기억한다면 그녀가 어떤 작가인지 훨씬 명료해진다. 줄리엣 비노쉬와 조니 뎀이라는 스타 캐스팅으로 개봉 당시 국내에서도 화제가 되었던 영화 <초콜릿>의 원작자가 바로 그녀, 조안 해리스다.

uk-조안 해리스 joanne harris



사진 제공 문학동네



글 | 김현진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강인한 모녀들의 이야기

<초콜릿>뿐 아니라 그녀의 소설에는 매 작품마다 어김없이 모녀가 등장한다. 아버지(=남편)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초콜릿>의 비안과 아누크, <오렌지 다섯 조각>의 미라벨 가족, <블랙베리 와인>의 질리와 매기/로자와 마리즈 모녀 역시 어디에도 그들의 아버지(=남편)는 존재하지 않고,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서 긴 시간을 들여 굳이 설명하지 않는다. 마치 아버지(=남편)의 부재가 별 어색할 것 없다는 식으로, 해리스의 필치에서 그려지는 모녀는 언제나 굳세게 살아간다. 엄마는 남편의 상실을 한탄하거나 남에게 의지하려는 일 없이 묵묵히 생활을 꾸려가며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나약히 흔들리는 일 없으며, 그녀들의 아이들 역시 철없는 응석 없이 깨끗하게 세상에 맞선다. 모녀가 아니라 자매처럼 보이는 유대감은 그들 개인의 인성의 강인함이 아니라 밀착된 모녀관계가 주는 강인함이다. 오히려 아버지가 존



<오렌지 다섯 조각> 조안 해리스 지음 | 송은경 옮김 | 문학동네 | 518쪽 | 값 11,000원
<초콜릿> 조안 해리스 지음 | 김경식 옮김 | 열린책들 | 318쪽 | 값 7,500원

재했다 하더라도 차마 부성이 끼어들 한 치 틈도 없을 모양새의 그들은 좀처럼 유례 없을 강고한 사랑으로 구축되어 있는 관계들인 것이다.

이와 같은 특징은 작품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 강조되어 '음식 3부작'의 가장 최근작인 《블랙베리 와인》에서는 딸 로자와 어머니 마리즈의 관계에서 극치에 이르고, 해리스는 직접 작중 화자의 입을 빌려 모녀의 애정을 묘사한다.

“...로자가 귀머거리의 언어로 노래를 부르며 손으로 어머니의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마리즈는 로자의 코에 자기 코를 대고 가만히 비벼댔다. 제이가 상상해 본 그 어떤 얼굴보다 아름답고 환했다. 그는 마리즈가 아이를 학대한다고 하는 미래유의 생각을 조금이나마 믿었던 자신이 갑자기 부끄러워졌다. 모녀의 사랑은 마치 햇살처럼, 둘 사이의 공기를 색으로 물들일 것 같은 사랑이었다. 그들의 교류는 완벽하게 고요했다.” (《블랙베리 와인》 275쪽)

언제나 작고 초라한 사람들의 편에서는 조안 해리스의 펜

이 모녀들은 언제나 예외 없이 그들이 속한 작은 공동체에서 쉽사리 수용되지 못한다. 《초콜릿》의 비안 모녀는 레노 신부에게 공개적으로 배척당하고, 심지어 《오렌지 다섯 조각》에서는 격노한 마을 사람들에 의해 온 가족이 무력 추방되기까지 한다. 《블랙베리 와인》의 로자와 마리즈 모녀 역시 마을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묵묵히 살아간다. 그들을 둘러싼 주변 인물 역시 마찬가지다. 해리스의 펜은 결코 근사하고 대단한, 잘난 사람들의 편을 들어 주지 않는다. 《초콜릿》과 그 속편격인 《블랙베리 와인》에서도 내쳐 등장하는 카롤린 클레르몽 부부는 그들이 원하는 존경은커녕 조롱의 대상으로 그려지며, 모든 달콤한 맛과 그 맛이 상징하는 쾌락을 죄악이라며 거부하는 레노 신부가 비안의 초콜릿 축제를 방해하려 감행한 근엄한 습격 역시 천상의 초콜릿 맛에 비참히 굴복되고 만다. 악마처럼 고집불통인 《오렌지 다섯 조각》의 어머니 미라벨은 특 쓰는 오렌지 향기에는 저항할 수 없이 무력하다. 언제나 마을의 유력인사로 자신하는 돈 있는 사람들보다 차라리 떠돌이 집시들이 훨씬 품위를 지닌 모습으로 그려지며, 역시 이들은 자신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작고 초라한 것들을 위해 전력으로 맞선다. 《블랙베리 와인》의 와인 몇 병과 고물단지만을 끌어안고 뺨꾸기처럼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면서도 어린 제이의 눈에 마지막 서부의 총잡이처럼 보일 만큼 자기 삶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잭애플 조, 《오렌지 다섯 조각》에서 세련되고 영악한 로르 부부에 맞서는 프랑부아즈 역시 승산이 없는 싸움을 향해 자신의 모든 초라한 무기들을 동원하여 승부를 거는 것이다.

이 소박한 군단과 대립하게 되는 잘난 사람들은 주인공들이 소중히 여기는 과거의 유산을 물질적 재산이 아닌 다른 형태로 보지 못하며, 그 유산을 얻기 위해 여론을 장악하려 전력을 다한다. 《초콜릿》의 레노 신부와 마을 유력 인사들은 집시들을 몰아내기 위해 애쓰며 마을 여론을 선도하려 하고 한술 더 떠 《오렌지 다섯 조각》의 로르 부부와 《블랙베리 와인》의 케리는 공통적으로 매스미디어 권력을 장악함으로써 승리자가 되려고 갖은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심지어 케리는 “세상을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은 마법이 아니라 돈”이라고 끝내 소리 내어 선언하기까지 하지만, 이번이 조안 해리스는 그들의 편을 들어 주지 않는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 해리스의 주인공들이 가벼운 대가를 치르는 것은 아니다. 《오렌지 다섯 조각》에서 조숙한 프랑부아즈는 사랑하는 사람을 물 밑에 묻고,

《블랙베리 와인》의 조는 일생의 역작이 될 수도 있었던 소설의 유일한 원고를 주저하지 않고 벽난로 안에 던져 넣는다.

그리고 맛, 또 다른 맛의 향연

그런 희생을 한 후에야 주인공들은 조소를 받을 지언정 그들만이 느낄 수 있는 맛을 누리는, 한층 깊은 인생의 미식가가 될 수 있다. 실제로 프랑스 요리에 대한 풍부한 식견으로 요리책 《프렌치 키친》을 집필하기도 한 미식이 해리스의 소설 속에서 언제나 승리자의 표식을 부여받는 사람들은 인생의 쓴맛 속에서도 자력으로 끝내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을 찾아낼 수 있는 이들뿐이다. 그리고 그들은 어김없이 강하고 자극적인 맛에 흠뻑 빠지는 일 없이 친근하고 소박한 맛을 지나치지 않는 다정한 시선을 지녔다. 이런 시선은 바로 조안 해리스라는 작가 그 자신의 시선일 것이다.

실제로 그녀의 증조할머니는 요리와 마법에 모두 능해 마녀로 불렸다고 하는데, 그런 피를 이어받은 해리스는 지팡이 아닌 펜으로 신데렐라를 무도회에 보내 준 친절한 마녀처럼 모든 약한 이들을 돌아보는 마법을 부리고 있는 셈이다. 그런 그의 펜대에서는 지금도 달콤하고 씹씹한 온갖 맛이 쏟아져 나오고 있을 것이다. 어서 그녀가 보여주는 다음 맛을 볼 수 있기를! **김현진**

● 이 글을 쓴 김현진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에 재학중이다. 시나리오작가로 활동중이며 현재 각종 매체에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저서로 《네 멋대로 해라》(1999, 한겨레신문사), 《불량소녀백서》(2005, 한겨레신문사)가 있다.